

“시장 환경 조성 우리가 責任진다”

송우6리 시장일대 환경개선위원회 창립총회

그동안 민속 5일장이 서는 날에 기존상권 붕괴문제, 교통난 유발 문제, 주차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송우6리 일대 상가주민들이 환경개선위원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5월28일 오후 6시에 개최된 송우6리 시장일대 환경개선위원회 창립총회는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송우리 6리 건물주 37명이 추천위원, 세입자 74명이 일반회원으로 참여해 민속5일장 문제로 인한 사업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마을회관 재건축 및 활성화 방안, 시장일대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도시가스 문제, 국민은행 앞 도로 좌회전 문제, 송우4거리(구시집앞) 횡단보도 설치문제, 시장을 상징하는 아치형 간판 및 조형물 설치, 2007년 1월 공표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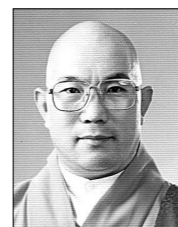
별법 제정으로 인한 지원방법 모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장마당내 정자나무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며 다수결로 배어내기로 의결했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상인회 등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조직된 송우6리 시장일대 환경개선추진위원회 임명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김삼겸▶백관영■회장이기양■부회장▶김진오▶김종현▶백한열▶엄기명■사무국장 전용훈■감사▶김도현▶권용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특별기고 ■ 부처님 탄생을 기리며 모두가 새롭게 탄생하자



석혜수
보통주주식

오늘 사월 초파일은 우주의 대 성현이신 석가세존께서 고해에서 해매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계에 오신 날입니다. 사월 초파일은 삼라만상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결실을 다짐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좋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모든 것을 깨우치신 부처님께서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론 내일 일 또한 제대로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또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어떤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때도 참으로 많습니. 눈을 뜨고 살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한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것은 그저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 하심을 일깨우겠다는,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로 보고 바로 듣겠다는 자기의 다짐이며 약속의 연등입니다.

미혹과 좌절의 고통을 해매는 중생 곁에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 길 잃고 방황하며 갖가지 탐욕·오만·대립·투쟁·혼란·갈등의 중생세계의 한복판에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무명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법명명 자명명’이라. 법으로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이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너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찬연한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있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나의 안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항상 괴로운 현실에 맞서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이유는 내 안에 존엄한 존재가 계심을 깨우쳐주시는 그 존재를 밝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등불을 밝히면 존엄한 자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힘을 갖게 합니다. 지극한 보배는 내 안에 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밝은 등불을 밝혀 내 안의 지극한 보배를 찾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보배라 하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보배를 찾는 자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연등은 진실로 무량부덕의 등이요 지혜광명의 등입니다. 등불을 든 자가 세상을 밝히듯 그는 무량중생의 등불입니다. 진실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 질시와 두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어둠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걷어내면 세상은 부처님의 광명국도입니다. 만상은 모두 빛을 향해 자라는 법, 빛이 있는 곳에는 만 생명이 자라납니다. 사람 역시 누구나 밝은 사람을 좋아하며 밝은 사람 주위는 늘 사랑과 평화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밝음으로 보은하여야 하며 밝음으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다짐과 약속으로 굳건한 서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자신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참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한마당 이야기 마음 비우는 삶



이보용
본지지원위원

마음 비우고 빈 몸이 되고 보니 세상을 바로 보이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빈 몸이 되기 전엔 허울 좋은 가식 덩어리가 가득 차서 넘쳐흐를 내리던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고 이제야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걸 예전엔 몰랐습니다.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알게되니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보이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종은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시인의窓

미안해요 황봉녀 (시인, 그리고문화회회원(경기 연천))

미안해요
사월의 변화가 일상이 듯
사랑 또한 잘못 배운 버릇이 되어버려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서툴러
사랑하는 법도 아직 서툴러
늘 포근하게 감싸주지만 하던 당신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밖에 몰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당신을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작은 손이 꿰레꽃 속에 숨은 벌레를 집으려다 꽃가지 하나를 분질러도 꽃은 울지 않는다. 오히려 꿰레가시가 작은 손에 닿을까 더 큰 향기로 노래를 부른다. 그렇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인가. 구름도 햇볕 들람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어느 곳에든지 시원한 그늘을 깔아주고 가기 마련이다. 그것은 해를 가린 잘못 보다는 자연의 굴레에 순응함이라 그렇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세상에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미안하다는 말이 사랑이란 말보다 때로는 더 감동할 때가 있다. 사랑은 불을 지피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언 땅을 녹인다.
안 익 수(시인)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의 진정한 친구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참여자 · 수혜자 기쁨 늘어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 및 물품을 포천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4월30일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는 포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학생 3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6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은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 남의 도움을 받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5월1일 본지 조사위원회 김종현 고문이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용호(70·우금리 326)할아버지와 오복임(80·우금리 826-28) 할머니를 찾아 쌀 20kg 2포대씩을 전달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것을 당부했다.

5월4일 한국BBS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과 민현숙 사무국장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BBS포천시지회 이틀으로 100만원을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하고 이날 영북종합고등학교 학생 2

명에게 25만원씩 50만원을 전달하고 이동중학교 학생 2명에게 25만원씩 50만원을 각각 전달하고 “지금은 비록 남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꼭 성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본지 박병식·김형석 조사위원은 5월4일 노곡초등학교를 방문해 3명의 어려운 학생에게 본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10만원씩 30만원을 각각 전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백미40kg과 화장품을 선물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 포천동지부장이 스리랑카에서 온 르완디 가족에게 전달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길 당부했다.

한편,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는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성금을 납부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손길에 의해 도움을 받는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의 진정한 친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4월30일 포천고등학교 교정실에서 재학생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6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국BBS 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이 이동중학교 교정실에서 재학생 2명에게 각각 25만원씩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국BBS 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이 영북종합고등학교 교정실에서 재학생 2명에게 각각 25만원씩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본지 김형석 조사위원이 이동면 노곡초등학교 교정실에서 재학생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본지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이 스리랑카에서 온 르완디 가족에게 화장품을 선물하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용경자의 세상읽기 7

전날부터 마음이 숙연해졌다. ‘부처님 오신날’ 경건한 마음으로 절에 가자겠기에 술좌석이나 부정된 마음과 행동을 피해보려 했지만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현세인지를 그리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불가에 연이 닿는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슴에 와 닿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기에 매년 마음이 설렌다. 아침 일찍 아홉시 5분이 모여 향과 촛불을 켜고 서로의 소원을 묻고 격려해주면서 시대를 벗어나 산중턱에 위치한 절로 향했다. 비가 내려 축축한 산사의 아침

부처님 오신날 山寺 풍경

기운은 내 마음을 묵욕시켰고 입구부터 늘어진 연꽃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일찍 오신 분들도 주차장은 만원 이었고 스님을 뵈기가 쉽지 않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맞고 응크려 앉았다. 비좁기는 했지만 모두가 가족처럼 평안한 얼굴이었다. 부처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인편 있는 분들과 안부의 말도 건네면서 주지스님의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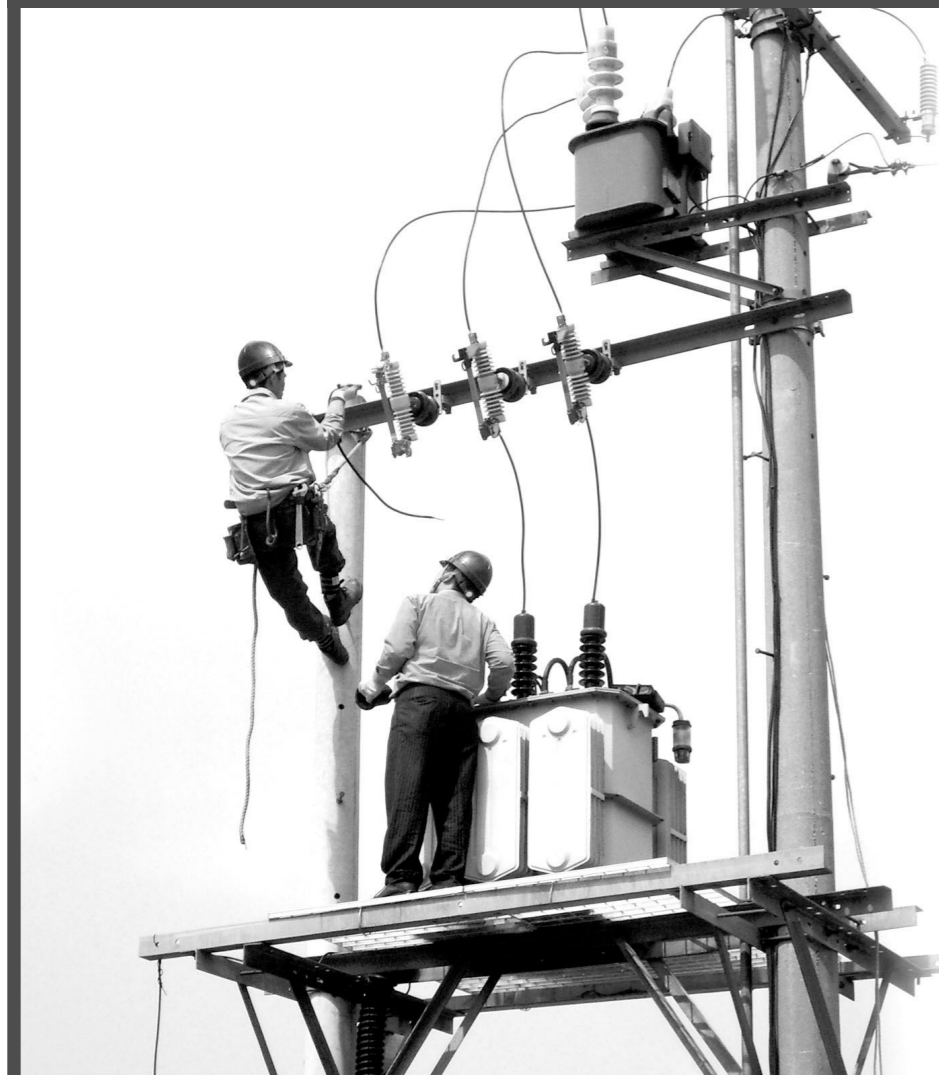
가 시작되었다. 천수경에 이어서 스님의 축원문과 반야심경이 이어졌다. 초보 신도인 나는 예배집을 보면서 따라 읽기조차 어려웠다. 그래도 어설피지만 열심히 읽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속에 잠시나마 부처님이 오신 듯 뿌듯했다. 예물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러 물러들어서 내심 걱정이었으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모두가 맛있는 산채나물 비빔밥을 먹을 수 있었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면 무슨 사고가 났을텐데...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배웠고 있었다. 딱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산사의 풍경이었다.

식구들의 무탈을 기원하며 1년 연꽃등을 달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큰 보람장보 힘을 가입 한 듯 가벼웠다. 올해도 부처님의 마음이 세상에 가득 넘쳐나길 기원한다.



2007년 한전포천지점 고압단가(소흘·내촌) 공사 협력업체



최 두 열
대표이사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고은종합전기(주)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